

경찰 관련 주요 보도 [조건]

2023. 6. 20.(화)

□ 경남 기사

- 창원 신월3 재건축사업 깊어지는 내분 (도민일보)
 - 조합원 부담금 급증하자 갈등
- 합천 '일해공원' → '생명의 숲' 지명 제정안 부결 (경남신문)
 - 군 지명위 "제정 적합하지 않다"

홍 보 담 당 관 실

“창원 시내버스 개편 시민 불편 철저한 준비 충분한 홍보 부족”

진보당, 대책 신속 마련 촉구
“대중교통 사각지대 없어야”
시, 민원 반영 9개 노선 조정

창원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지역협의회는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선 폐지 지역과 충분한 사전 협의, 대시민 홍보 등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부족했다”며 “더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흥남표 창원시장 대응도 지적했다. 흥 시장은 개편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의창구 경상고등학교 통학 노선 시내버스를 타고 환승 체계를 점검하고 나서 “간선 배차간격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뒀지만 환승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로 말미암아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며 “당장 불편을 느끼더라도 이해해보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보당은 “시민이 큰 불편을 호소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며 “소홀하고 부족했던 부분에 사

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작은 글씨 때문에 불편을 키웠던 새 노선도, 부족한 환승 거점 정류장 등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밀한 실태 점검으로 당장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시는 3개월 후 수정·보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폭주하는 시민 불만·불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지금부터 보완책을 찾아 시민 불편을 당장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 효율을 앞세워 돈 안 되는 적자노선을 일방적으로 폐지해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65세 이상 시민과 초·중·고교생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도 노선 개편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9개 노선(조정 5개·운행계통 변경 4개)에 변화를 줘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9월 1차 노선 보완에 앞서 사이사이 점검·수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심명숙 신교통개선팀장은 “27번 버스는 북면에서 경상고 학생 등하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루 4편도(아침 2회·저녁 2회) 운행경로를 일부 변경했다”며 “진해 309번 종점을 속천종점에서 속천어촌계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진해 350번은 제덕마을을 거

치도록 했고 353번은 노선 개편 이전 경로로 재운행해 용원·신항~신항공단 이동 편의성을 도모했다. 520번은 오후 시간 종점을 바꾸고 임시 증차해 공단지역 노동자 환승편의성을 높였다”며 “17번은 2대를 줄이고 510번은 1대 증차했다. 530·540번은 출퇴근 시간대 운행시간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원이대로 간선급행버스(BRT) 준공과 맞춰 배차간격 조정 등 2차 보완을 하고 내년 하반기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운행·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차 보완할 계획이다. 개편 초기만큼은 아니지만 창원 대중교통민원신고 게시판에는 노선 개편으로 말미암은 불편·대책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시가 강조했던 ‘환승 확대(1회→2회, 읍면 노선 10분 연장·총 50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반노선에서 읍면노선으로 50분 안에 갈아탔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또 결제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는 “환승은 하차할 때를 기준으로 일반·읍면 노선별 25분·50분을 두 차례 적용한다”며 “혹 마이비카드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겠다”고 밝혔다.

/이창연 기자 un@idomin.com



19일 합천군청에서 일해공원과 관련해 합천군 지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합천군/

합천 '일해공원' → '생명의 숲' 지명 제정안 부결

군 지명위 "제정 적합하지 않다"
"군민 원하는 명칭 정해야" 권고
지역 단체, 일해공원 변경 촉구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딴 '일해(日海)공원' 지명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심의해 달라는 주민 발의 제정안이 부결됐다.

19일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합천군 지명위원회는 현 일해공원 지명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제정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했다. 지명위원회는 다만 공원 명칭에 대해 수년간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주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토론회 또는 공론화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등 군민이 원하는 공원 명칭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지명위원회는 2021년 12월 일해공원 지명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심의 의결해 달라는 주민발의에 의해 개최됐다. 지명위원회는 지명 제정안에 대해 지난해 두 번의 회의를 했으나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지명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군청 앞에서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운동본부는 "합천군은 공원 명칭에

일해라는 지명을 부여한 것이 공간정보관리법과 정부의 지명 규정을 위배한 행정행위임을 인정하고 기존 생명의 숲 지명을 다시 사용하거나 군민들에게 새로운 지명을 공모해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명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합천군 지명위원회가 지명을 의결하고 상급기관의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상급기관의 심의에 상정하지 않기 위해 1500여명 군민의 정당한 주민발의를 기각하는 꼼수결정을 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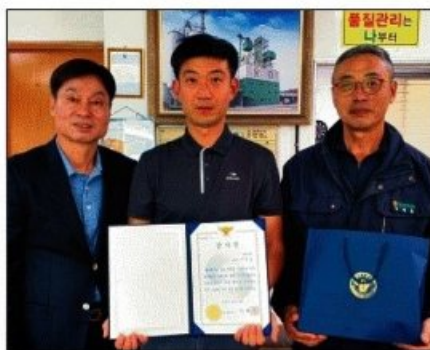
합천군민운동본부가 19일 합천군청 앞에서 일해공원 명칭 변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합천군민운동본부/



거창경찰서, 거창중학교서 교통안전교육

거창경찰서(서장 임영인)는 지난 13일 거창중학교 전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규 준수

율이 낮고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알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 이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법규 준수, 안전수칙 등에 대해 교육했다. 김윤식 기자



합천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기관 직원에 감사장

합천경찰서(서장 이재욱)는 지난 1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축협 직원 A씨, 농협은행 은행원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축협 직원 A씨는 지난달 26일 60대 고객이 범인에게 속아 악성 앱을 설치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농협 은행원 B씨는 지난달 30일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려는 70대 고객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김명현 기자

오늘의 날씨

저녁부터 더위 식힐 비

20일 부산 울산 경남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오겠다. 예상강수량 10~60mm.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2023년 6월 20일 (음 5월 3일) 기상안내 131



나들이	자외선	피부	냉방	빨래
30	40	80	60	20

맑음	맑은 후 구름많음	한때 비
구름조금	구름많은 후 맑음	천둥번개
구름많음	흐리고 비	흐리고 비눈
흐림	소나기	흐리고 눈

	해돋이/해짐		달돋이/달짐
05:09	19:41	06:27	21:43

물때	밀물	썰물
부산	09:24 21:53	03:17 15:30
인천	06:09 18:15	12:35 -
포항	15:30 -	00:13 -
통영	09:47 22:33	03:59 15:54

바다날씨	방향	풍속 %	파고m
남해서부	동-남동	7-11	0.5~1.5
남해동부	북동-동	4-8	0.5~1
동해남부	동-남동	5-10	0.5~1.5
동해중부	남동-남	4-8	0.5~1
서해중부	동-남동	3-7	0.5~1
서해남부	동-남동	6-9	0.5~1

주간날씨	21(水)	22(木)	23(金)
부산	21-25	21-26	20-26
울산	20-25	20-27	19-27
진주	20-26	19-29	19-29
김해	21-26	21-28	20-28
창원	21-26	20-28	19-28
통영	21-25	20-26	20-26
대구	20-27	20-30	20-30
세종	20-26	19-28	20-30
서울	20-24	19-27	20-29
제주	22-26	21-26	21-27